

# '내일의 농업을 여는 핵심 열쇠'

### 농촌진흥청, 마이크로바이옴 심포지엄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4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미래대응 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마이크로바이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서의 미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분야별 초청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기초강연자로 나선 서울대 천종식 교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 및 산업적 동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의 문을 열었다. 농식품 분야의 경우 '농식품 분야에서의 마이크로바이옴 투자와 연구개발 현황'에 대해 미생물 유전체전력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김지현 교수가 발표했다. 환경 분야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에 대해 '마이크로바이옴과 생태계 기능'을 주제로 고려대학교 박우준 교수의 발표와 함께 충북대 한남수

교수가 '식품이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했다. 축산 분야의 경우 '축산분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동향 및 방향'에 대해 부산대학교 김명후 교수가 발표했다. 분야별 토론에서는 미생물, 식품, 축산, 정보공학의 4개 분과로 나누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분야별 마이크로바이옴의 추진 전략을 도출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일 미생물 활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식물의 치료, 고품질 식품 생산, 인체 건강 향상, 환경문제 해결 등 무한 잠재력을 가진 분야로 선진국에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기술적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산업 전반에 걸친 농업의 디지털화와 함께 미생물의 과학적 이용과 관리에 대한 연구로 마이크로바이옴의 분석과 활용, 발효 증



농촌진흥청이 24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미래대응 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마이크로바이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균 등 유용미생물 발굴과 이용, 동식물의 병원성미생물 제어기술 개발 등 연구를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농업연구기관과 민간의 전문가가 지혜를 모아 농업의 미래를 여는 마이크로바이옴 핵심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군산시 에너지 유관기관, 사회 공헌 활동 협약 체결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이철호)와 한국가스공사 전북본부, 한국서부발전(주) 군산발전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군산지사, 한전KPS 군산사업소 등 군산 관내 5개 에너지 유관기관은 지난 22일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군산시 에너지 유관기관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장, 한국서부발전(주) 군산발전본부장, 한국전기안전공사 군산지사장 등을 비롯한 각 기관의 에너지 분야 실무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한전 이철호 군산지사장은 "협약을 발전시켜 에너지 유관기관들이 소통

과 화합의 구심점 역할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사회 공헌 활동의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이어, 한국서부발전(주) 군산발전본부장 및 참여 기관장들은 "업무 협약은 각 기관이 에너지산업 발전 및 사회적 가치 구현의 대표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지역사회에서의 공동 역할을 다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5개 군산시 에너지 유관기관은 군산 시민들에게 한 차원 향상된 최상의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실질적인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영태 기자

## 참여우, 대한민국 신뢰받는 품질혁신 '대상'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24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중앙일보·포브스코리아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JTBC가 후원하는 2019 대한민국 신뢰받는 품질혁신 대상에서 전북 한우 광역브랜드인 '참여우'가 한우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품질혁신 대상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전과 창의적인 혁신으로 국가 경제 향

상에 기여한 신뢰받는 기업들과 브랜드를 선정하여 격려코자 만들어졌다. 권용화 NH참여우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이번 참여우 브랜드의 품질혁신 대상 수상은 고품질 고급육 생산·안전 위생 강화·유통망 구축의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브랜드 가치를 높여온 사업단과 브랜드 참여축협 및 농장주들 간의 협업의 결과이다"고 분석했다.

강병무 남원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브랜드 참여 축협 조합장들은 "소비자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내 최고한우 브랜드를 넘어 글로벌 한우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우는 한우 생산에서부터 도축·가공·유통·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브랜드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관리되는 전북 명품 한우 광역 브랜드



로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6년 연속 명품 인증, 소시모 우수 축산물 11년 연속 인증을 받았다. /김윤상 기자

## 차별화된 노선 경쟁력 확보

### 이스타항공, 중국 최대 LCC 춘추항공과 공동운항 추진

이스타항공이 중국 최대 저비용 항공사인 춘추항공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중국 시장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이스타항공과 춘추항공은 23일 중국 상하이 힐튼 훙차오 호텔에서 이스타항공 최중구 대표, 춘추항공 왕즈지에(WANG, ZHI JIE)총재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노선 활성화와 관광, 항공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춘추항공과 주요 노선에 대한 공동운항을 비롯해 양사의 노선 활성화와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이스타항공은 춘추항공과 인천-상하이 노선의 공동운항을 통해 현지 인바운드 수요를 확보하고 스케줄 선택 폭을 넓혀 고객 편의 향상에 나선다. 인천-상하이 노선은 양국의 FSC(Full Service Carrier)와 중국 LCC(Low Cost Carrier)인 춘추항공이 운항하던 대표적인 과점 노선으로 지난 12일 이스타항공의 신규취항으로 저비용항공사의 비중이 높아졌다. 양사는 공동운항을 통해 노선 스케줄의 선택 폭을 넓히고 지상조업 등 협업을 통한 원가절감과 서비스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이스타항공은 인천-상하이 노선에 이어 올해 동계시즌 취항을 준비 중인 제주-상하이 노선도 춘추항공과 공동운항으로 영업적 시너지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과 춘추항

공은 상호 노선을 연계 할 수 있는 인터라인 판매를 추진한다. 인터라인 판매를 통해 이스타항공의 거점 공항인 인천, 김포, 청주, 김해, 제주공항과 춘추항공의 거점 공항인 상하이, 스자좡, 선전, 선양 등을 연결한 연계 상품개발로 차별화된 노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춘추항공과 양사의 현지 네트워킹과 시스템, 정보 등을 적극 공유하여 항공교류 증대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협업을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스타항공 최중구 대표는 "한국과 중국은 상호간 항공교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두 항공사간 경쟁과 협력은 양국 국민들의 항공편의를 높이고 교류 증대를 이끌어 내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이날 협약식에 이어 인천-상하이 현지 취항 기념행사를 가졌다. /김영태 기자

## aT, 야구관람객 대상 농식품 소비자 체험 '큰 호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계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aT)는 지난 7월 20일부터 양일간 '2019 한-대만 문화교류 향연' 행사와 연계하여 대만 스포츠팬들에게 한국 농식품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의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 응원단이 초청되어 대만의 라미고 몽키스 홈팬들과 호흡을 맞추고, 이승엽 해설위원이 시구자로 마운드에 올랐다. 1만 8천여 명이 넘는 야구팬들이 찾은 타오위안(桃園) 야구장은 한국과 대만 야구팬들의 응援열기로 뜨거웠다. aT는 한국산 사인머스켓, 거봉, 멜론, 수박, 미니토마토를 과일 도시락으로 제공하여 무더운 날씨에 야구를

관람하는 야구팬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행사장을 찾은 대만 시민 전성연 씨(陳成淵, 42세)는 "한국산 멜론, 사인머스켓 등 다양한 과일을 맛볼 수 있어 좋았다. 맛도 좋고 신선해서 앞으로 자주 구매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김치 쿠킹클래스도 진행되었다. 김치 교실에 참가한 전 제이 씨(陳存傑, 35)는 "평소 한국 김치를 반찬으로 종종 먹는다. 아이들이 건강에 좋은 김치와 친숙해지는 기회가 되어 즐거웠다"고 전했다. 신현근 aT 식품수출이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 체험행사를 통해 한국 농식품 홍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200명에 일억원 장학금 전달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24일 본점에서 2019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김영구 이사장, 전주시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고등학교 100명에게 70백만원, 중학교 100명의 학생들에게 3,000만원, 총 일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와 축하를 전했다.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010년 출범하여 현재까지 1,908명의 학생들에게 8억 8,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영태 기자

또한, 매년 교육환경개선사업, 문화활동 지원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3D프린터 지원사업, 우리들 경제이야기 JB 유투버 공모전, JB 진로코칭캠프, JB 인문학 강좌, 커리어 캠프 등 다양한 교육문화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인재양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김영구 이사장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소정의 장학금이 학업 정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이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도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